

李 지지율 34.9%…취임 후 최저치 경신

KSOI 조사…2주 새 3.6%p 하락
호남 긍정평가도 12.9%p 급락
국민의힘 37.1% 민주당 34.9%
부정평가 이유 ‘외교안보’ 1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추가 급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론조사업체 KSOI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주 전보다 3.6%포인트 하락한 34.9%로 집계됐다. 이는 KSOI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1.0%p 오른 58.8%, ‘잘 모름’은 6.3%였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왔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 28.7%·부정 56.0%) △부산·울산·경남(긍정 30.9%·부정 63.6%) △대전·세종·충청(긍정 31.9%·부정 63.0%) △강원·제주(긍정 33.8%·부정 61.4%) △경기·인천(긍정 35.2%·부정 59.7%) △서울(긍정 35.6%·부정 61.1%) 순으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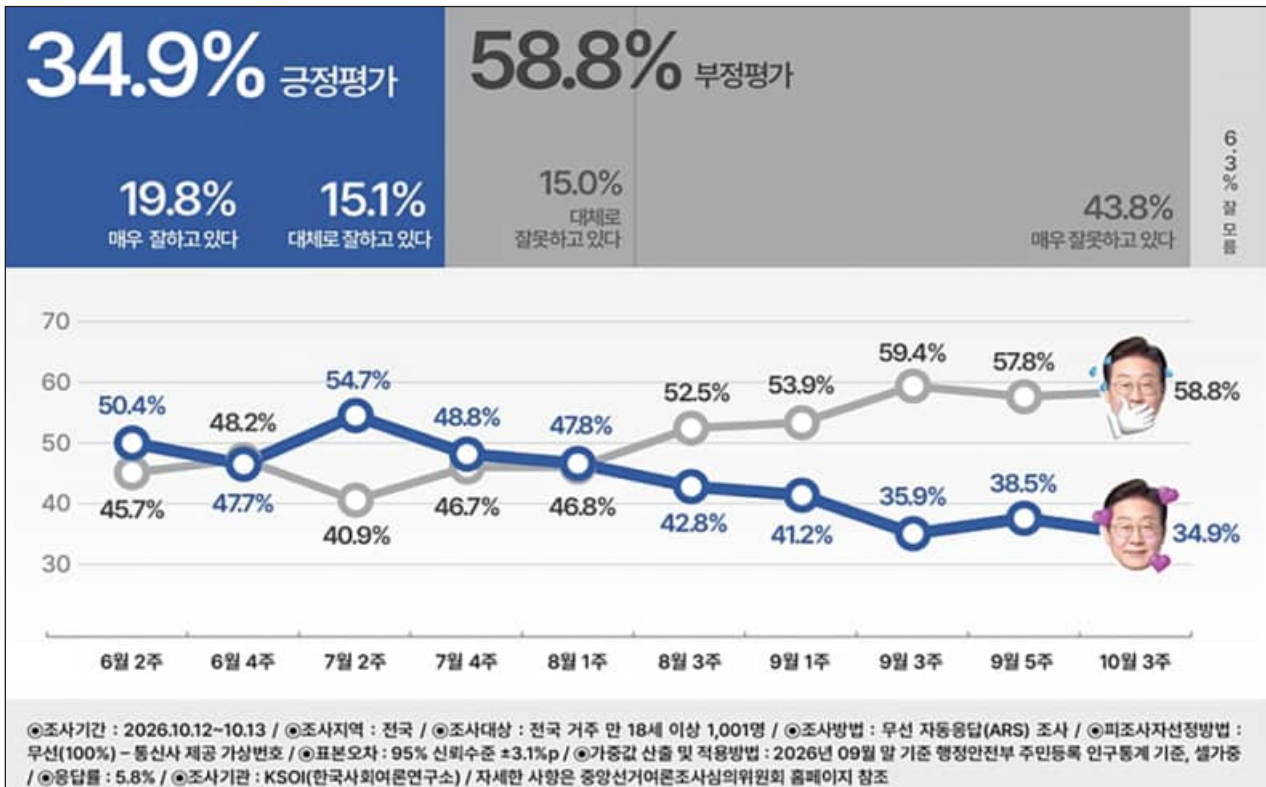
반면 광주·전남·전북(긍정 48.9%·부정 40.6%) 역시 2주 전 조사(61.8%)때보다 긍정평가가 12.9%포인트가 급락했고, 부정평가도 40%선을 넘어서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부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안보’(17.6%)가 가장 많았고 ‘경제 회복’(16.6%), ‘국민 통합’(15.4%)이 뒤를 이었다.

정치이념 성향별로 진보층은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보다 4.8%포인트 하락한 55.1%(부정 42.8%)였고 보수층은 부정평가가 78.9%포인트(긍정 16.4%) 중도층은 부정평가가 55.6%로 긍정평가(41.4%)보다 14.2%포인트 높았다.

KSOI는 “부동산 및 농지 조사 등 주요 정책 비판 여론과 함께 북한군 포로 송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KSOI가 지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4.9%로 2주 전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58.8%로 오르며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사진=KSOI>

건 등 외교·안보 약재와 인사 검증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7.1%, 더불어민주당 34.9%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승필 “농업기술원 인력 확충·조직 개편해야”

“전북도 농업연구 인력난 심각”

장 의원 연구단체 전면 개편 요구
블루베리 전문 연구기관 신설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순창)은 제4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농업기술원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산하 연구조직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며, 전북도에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농업기술원은 전북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산하 연구소와 시험장은 지역의 주력작목과 밀착해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장승필 도의원

개발하고, 그 성과를 농가에 보급해 소득으로 연결하는 전북 농업의 현장 연구기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할 연구인력은 수년째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원 전체 정원은 213명이지만 현원은 2024년 197명, 2025년 196명, 2026년 9월 198명으로, 매년 15~17명의 결원이 반복됐다.

수박시험장은 정원 6명 중 2명이, 약

초·고랭지작물·파프리카시험장은 각각 1명이 결원이다.

특히 “몇 년째 반복되는 결원을 일시적인 인사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다”며 “연구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인력운영과 조직관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시험장별 연구과제와 현장지원 업무를 분석해 정원 조정과 전문인력 확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른 도와 비교한 산하 연구조직의 인력 기반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3개소에 78명, 전남은 4개소에 63명이지만 전북은 5개소에 44명이라는 것이다.

전북 해양관광 소비 전국 2.1%… 복합거점 조성 산업생태계 키운다

새만금 크루즈·부안마리나항만
고창해양치유 축 산업생태계 조성
민간투자·지역기업 연계 체류 확대

전북도가 새만금신항 크루즈 관광, 부안 공항 마리나항만, 고창 해양치유센터 등을 축으로 해양레저관광 산업생태계를 확대해 지역경제의 새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그간 개별 관광시설 조성 and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관광거점과 숙박·음식·레저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하나로 이어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크루즈·부안마리나·고창해양치유 등 핵심산업 육성 ▲고군산군도·김제 심포 복합해양관광거점 조성 ▲사계절 해양레포츠·해수욕장 활성화를 역점으로, 민간투자 and 지역기업 참여를 넓혀 관광소비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만들 방침이다.

최근 관광수요가 단순 관광형에서 레저·체험·휴양·미식을 아우르는 체류형으로 바뀌며 해양레저관광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역시 2025년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을 계기



부안 공항 마리나항만 조감도

로 산업육성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북은 새만금 and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고창갯벌, 김제 심포 등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관광소비 and 산업으로 연결할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실제 2024년 전북의 해양관광 소비 규모는 8,368억 원으로 전국(38조 9,208억 원)의 2.1%에 그쳤고(KMI 동향조사), 도내 마리나업 5개소, 수상레저사업장 24개소 등 관련 산업기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그동안 다져 온 해양레저관광 기반 위에 개별 시설 and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핵심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관광계 유입 and 지역 내 소비를 끌어올리는 산업형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장정철 기자

장 의원은 기관별 기능 차이로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전북의 연구인력이 충분하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하다면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조직의 기본 틀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고랭지작물시험장의 전신은 1992년, 약초시험장은 1994년, 수박시험장은 1995년에 설립됐다. 그동안 작목구조 and 생산기반, 시장 and 기술 수요가 달라진 만큼 기존 조직 and 담당작목이 현재의 농업환경에 적합한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오래된 조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해서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임지·담당작목·인력·연구 성과를 원점에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통합·이전·기능 조정 and 신규 연구기능 배

치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블루베리 전문 연구기관 신설 and 순창 설치 검토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전북의 블루베리 재배면적이 508ha로 전국의 14.5%를 차지한다며 “생산기반에 걸맞은 전문 연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순창은 123ha(588농가)의 생산기반 and 소득개발시험포 등 실증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발효·바이오산업 and 연계할 수 있는 순창을 우선 검토하고 설치 방식 and 인력·시설 확보 방안,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장승필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과거의 조직을 유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북 농업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자연특별시 무주

고향사랑 기부제

무주사랑

나눔 실천

- 고향사랑 기부제 -

개인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금 용처: 취약계층지원, 청소년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부방법-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로그인

기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택

무주군에 기부하고, 기부포인트로 답례품 선택!

무주에 기부하고 답례품 받아주세요.

자연특별시 무주

전북도,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 신청 접수

노후축사·생산시설 개선자금 지원
융자80%·자부담20%, 연2% 금리
내년부터 평가·선정 방식 변경...
지방정부 접수받아 농식품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축사와 생산시설 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악취저감과 방역시설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와 농업법인 등이며, 축사 신축·개보수, 생산시설 개선, 악취저감·분뇨처리시설 및 방역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연 2% 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다. 2027년 전국 사업 규모는 총 1,041억 원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이 기존 지방정부 자체 선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위원회의 평가·선정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향상 효과, 사업 추진 가능성, 정책적 필요성, 환경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청 농가는 도입하려는 시설·장비와 생산성 향상 효과, 악취저감 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축사 신축·증축을 계획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여부와 자부담 조달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도는 시군에서 접수한 신청자료를 검토해 오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할



<자료사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1월 중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폐

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내년부터 달라지는 선정 방식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2027년 국가예산 국회 심의 대응 본격화

정부안과소·미반영 70개 사업 점검
26일부터 도·시군 국회 상주반 운영
29일 지역·연고 의원 예산정책협의
상임위·예결위서 증액·감액 방어

전북도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대응에 나섰다.

도는 14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부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국가예산 국회 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정부안에 과소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70대 중점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예산안 최종 의결까지 실·국별 실무 대응과 지휘부의 현장 활동, 정치권의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0월 중에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중점사업의 필요성과 증액 타당성을 집중 설명하고, 대응 논리를 보강하는 등 국회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집중한다.

오는 26일부터는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국회 상주반을 박지원 국회의원실에 운영해 심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증액 요구사업과 감액 우려사업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29일에는 지역·연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상임위·예결위 심사 일정에 맞춰 사업별 증액 요구와 감액 방어에 집중한다. 예결소위 단계에서는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핵심사업의 추가 반영을 적극 추

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는 기획예산처 관계자와 국회 핵심 인사를 직접 만나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설득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원택 도지사는 "국회 심의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승부처인 만큼 실·국별 치밀한 대응과 지휘부의 적극적인 설득,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전북의 핵심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가입률 5.42%"

8월 기준 5만2778호에 불과
전국 확대에도 실제 이용 미흡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의 전국 가입률이 지난 8월말 기준 5.4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기상재해 위험을 미리 알려 농가의 피해를 줄이려는 이 사업으로 제공 지역 확대를 넘어 필요한 농가에 경보가 전달되고 실제 대응에 활용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 농가는 5만 2,778호다.

농촌진흥청이 가입 대상의 기준으로 삼은 전체 농가 97만 3,233호의 5.42%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가입 농가 4만 3,416호, 가입률 4.46%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입 대상 농가 100호 중 5호 정도만 가입한 수준이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재해 관리를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장 단위의 상세한 기상정보와 작물의 생육상황을 고려한 재해 위험을 예측하고, 농업인에게 대응지침을 제공한다. 정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함께 농가가 위험을 제때 알고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가입률이 낮으면 정밀한 예측정보를 생산하더라도 이를 농가의 사전 대응으로 연결하는 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지역에 포괄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농가에 경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기 때



윤준병 의원

문이다. 제공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더라도 맞춤형 알림을 받는 농가가 제한적이라면, 재해 예방 효과

를 넓히기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그 반면 농촌진흥청은 가입률은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국정과제 달성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제공 지역을 넓힌 성과는 인정하더라도, 낮은 가입률과 실제 이용 수준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해소된 것은 아니다. 농가에 경보가 얼마나 전달되고 활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제공 범위 확대를 앞세우는 것은,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성과 홍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농촌진흥청은 가입 확대 방안으로 지방정부 협업, 농업e지 앱 알림 연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추가 할인 검토 등을 제시했다. 다만 농업e지 앱 알림은 올해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보험료 할인은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러한 대책이 실제 경보 수신 농가의 확대에 이어 지도로 추진 일정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조기경보서비스는 농가가 위험을 미리 알고 대응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의 개선 조치가 충분했는지 점검하고, 지역별 가입 격차 해소와 고령 농업인의 가입 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안호영 "동군산병원 괴롭힘 의혹, 특별감독해야"

고인사망 후 추가 피해 제보 잇따라
폭행·따돌림 등 유사 의혹 제기
"조치·신고자 보호 국회 보고해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동군산병원 직원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제보와 진정 내용을 공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를 빠짐없이 확인해 줄 것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안호영 의원

장관에게 요청했다.

지난 6월 동군산병원에 입사한 스물여섯 살 방사선사 고 임가현 씨는 입사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출근을 두려워했다고 밝혔지만, 병

원은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군산지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합동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유족지원단 접수 제보에 따르면 고인이 근무한 부서 외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피해 주장이 잇따랐다. 한 제보자는 술자리에서 머리를 맞고 엉덩이를 발로 차였으며,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까지 당했고, 특히 관리자에게 이를 알린 뒤에는 오히려 따돌림을 당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점심을 함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들 앞에서 질책을 받고, 겨울에 외투 없이 병원 입구에서 인사하도록 지시받았다.. 면담 중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부서와 근무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9월 29일 군산지청에 접수된 진정서(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작성)에도 비슷한 의혹이 담겼다. 동료가 거절했는데도 자택 술자리를 거듭 요구하고, 심야 술자리 요구를 거절하자

"신데렐라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냐"며 조롱했다는 내용이다. 또 "몸매가 늘씬해서 인기가 좋다"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반복해서 들었고, 이를 팀장과 과장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여러 제보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피해를 알려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을 겪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신고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자체 조사가 누구의 진술

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는지, 신고자 보호는 제대로 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재직 직원에게는 병원 관계자의 개입 없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기간 중 업무 배제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보별 확인 내용과 판단,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신고자 보호 및 재발 방지 계획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우리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공기 만들기



하루3번, 10분씩 환기는 필수
미세먼지가나쁜날에도
조리후에는 30분



공기청정기 환기시스템
필터미리점검



외출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은 하늘 만들기



가까운거리는
걸고



폐기물배출
소각량
줄이고



낭비되는
전력은
뺏고

민간의 통 큰 기부 전주시 공공자산 확충

만호개발, 전주시에 만성동 상가 3개 호실 기부

전주시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공공자산을 확충하게 됐다. 시는 14일 전주시장실에서 주식회사 만호개발(대표이사 양승곤)과 덕진구 만성동 소재 구분상가 3개 호실을 전주시에 무상 기부키로 하는 내용의 기

부채납 식을 가졌다.

이날 기부채납식에는 조지훈 전주시장과 주식회사 만호개발의 양승곤 대표이사과 김종국·김영혜 이사(리딩스타(주) 대표)가 참석했다.

주식회사 만호개발은 법인 청산 과정에서 해당 재산을 전주시에 무상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

득하고, 입지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만호개발 관계자는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었지만, 회사를 함께 이끌어온 4명의 임원이 뜻을 모아 재산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전주시의 공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가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자산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민간의 소중한 재산을 공공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뜻깊은 사례가 만들어졌다”며 “이번 기부가 전주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2026년 전주시장기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노사 상생·근로자 사기 진작

전주지역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권익 신장, 근로의욕 고취,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가 열렸다.

전주시와 한국노총 전주시지부는 14일 화산체육관에서 조지훈 전주시장(사진)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 김경오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 의장, 한국노총 전주시 지역지부 소속 노동자 2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시장기 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수단 입장과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축구 △농구 △

으로 꾸며졌다.

김경오 한국노총 전주시지역지부 의장은 “노동자들을 위한 뜻깊은 행사인 만큼 오늘 하루만이라도 일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동료들과 함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노동자들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동자 복지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해 사무국, 이동노동자쉼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노동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열기, 전북 전역 확산

전북 6개 시군 15개 학교·단체 참여 학생 단체·가족 체험 전 회차 마감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전시 단체 체험에 대한 관심이 전주를 넘어 전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전시 단체 체험에 김제와 군산 등 전북지역 6개 시·군의 16개 학교·단체 3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타 지자체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펼쳐진 본 행사에 이어 현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원화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시작된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 단체와 가족 체험 등 총 20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여자들은 올해 그



전주시는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전시 단체 체험에 타 지자체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전주시>

림책 도서전의 메인 초청작가인 김동성 작가와 지미 리아오 작가의 원화를 관람하고 그림책과 연계된 만들기 체험 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생 단체 체험 위주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올해부터는 가족 단위로 확대됐다. 학생 단체 체험과 가족 단체 체험 모두 사전 접수가 마감돼 현

재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지만, 원화 전시 관람은 도서전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까지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전시 해설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4회씩 운영된다.

시는 이번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 타 지역 학교와 기관이 참여해 그림책 활용 문화축제의 우수 사례를 직접 경험하면서 전주시민만의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림책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전주를 넘어 전북 지역 학생들이 도서전을 찾아 그림책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지역의 그림책 문화를 확산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문화축제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정연구원 “책·정원 관광 연계해 체류형관광 확대해야”

관광 동선 확장 제안

전주시가 운영하는 특화 프로그램인 도서관여행과 정원여행을 연계해 체류형관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정연구원은 도서관과 정원 등 전주시 생활문화자원을 관광객의 체류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 이슈브리프 ‘전주시 책·정원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관광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지역관광 정책이 기존 방문객 수 중심에서 체류시간과 소비 지출, 재방문 등 질적 성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특화 운영해 온 도서관 여행과 정원여행의 사례를 토대로 체류시간·활동공간 확대와 지역 자원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 특징이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지난 2021년 시범 운영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총 871회 운영돼 1만230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상반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타지역 응답자의 89.6%가 도서관 여행을 전주 방문의 주된 목적으로 응답했고, 응답자의 52.1%는 전주에서 2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여행은 반일·하루형 산시 프로그램과 더불어 1박 2일 ‘전주(書) 스테이’와 2박 3일 ‘웨이크인 도서관 여행’ 등 다양한 체류유형으로 운영되고, 지역서점·책문화공간·베이커리·숙박 등 민간공간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면서 도서관 방문을 주변 생활문화공간 이용으로 확장한 주요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원여행의 경우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원산책·정원해설 프로그램에 누적 1만332명이 참여했으며,

운영 공간도 기존 한옥마을에서 전주월드림광장과 덕진공원 등 전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정원산책 프로그램의 경우 정원과 골목·역사문화공간을 연결한 도보형 코스와 야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 기존 관광 일정에 새로운 활동 시간과 방문 공간을 추가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연구원은 정원여행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주체 간 협력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연구진은 도서관과 정원이 시민의 일상적인 문화·복지공간이면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지난 2024년 ‘전주 도서관 여행’ 정원편을 통해 특화도서관과 전주정원문화센터의 정원산책·체험을 하나의 일정으로 운영

한 경험을 토대로 두 콘텐츠의 연계 가능성도 확인했다.

이에 연구원은 △한옥마을과 주변 생활문화공간을 연결하는 체류관광 동선 확대 △특화도서관·정원의 스토리 및 다국어 자율해설 고도화 △공공 관광콘텐츠와 지역 민간사업자를 연결하는 상생형 관광생태계 확대 △주민복지와 관광체류를 함께 고려한 선택적 야간 이용기반 확충 △체류시간·지역소비 중심의 성과관리 고도화 등을 향후 검토 방향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향후 사업 성과를 운영 횟수와 참여 인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추가 체류시간과 추가 방문 공간, 추가 지역 소비를 핵심지표로 설정해 도서관·정원여행이 관광객의 실제 체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민 기자

담쟁이갤러리 전시 참여 지역예술가 모집

전시장 무료 대관 홍보물 제작비 지원

전주시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서학예술마을 담쟁이갤러리 전시에 참여할 지역 예술가들을 공개 모집한다.

예술 전문 특화도서관인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전시가 가능한 담쟁이동 1층 갤러리 공간을 지역 예술가에게 무료 대관하고, 전시 홍보물 제작비(염서 또는 리플릿)도 1인(팀)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팀 예술가로, 지난 2021년 이후 전주 지역에서 개인전 1회 또는 단체전 1회 이상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정혜민 기자

다만, 더 많은 지역예술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올해 서학예술마을도서관 담쟁이갤러리 전시에 참여한 예술가(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총 11팀(명)을 선정해 예술가별로 월 1개월 이내 전시 및 작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참여 예술가들은 전시 기간 중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 주제와 연계한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재능 기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가는 전주시 누리집 또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소공인 화합의 장 마련

소공인 문화의 날 개최

전주시가 지역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공인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열었다.

시는 14일 전주대장간(덕진구 신북로 80)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서난이 전북도의원, 최지는 전주시의원, 이혁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등 지역 급속가공소공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공인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이어 2번째를 맞이한 본 행사는 (사)전북벤처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소공인 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주요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또, 소공인들은 바쁜 생산 현장에서 벗어나 모처럼 문화 공연을 즐기며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와 시는 그동안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기술역량 강화교육 △맞춤형 컨설팅 △제조공정 혁신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2024년 문을 연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인 ‘전주대장간’을 통해 공동 장비 활용과 기술지원 등 급속가공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 기반 마련에도 공을 들여왔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립국악단, 젊은예인시리즈 ‘채홍’ 개최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젊은예인시리즈 ‘채홍(綵虹)’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차세대 국악인들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6명의 젊은 국악인이 전주시립국악단과 협연하며 각자의 기량과 개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김호주 객원지휘자(락음극악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며, 가야금과 대금,笙 등 전통 국악기의 협주곡부터 판소리와 전통춤을 국악관현악과 결합한 작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신예 국악인들이 전주시립국악단과의 협연을 통해 무대 경험을 쌓고 음악적 역량을 펼치



는 자리로, 관객들에게는 전통음악의 깊이와 창작국악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연 입장권은 일반 5000원, 학생(초·중·고) 및 단체(20인 이상) 3000원으로, 누리컬처(www.naru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유아 대상 기후환경 체험행사 마련

전주시는 오는 17일 전주자연생태관 실외학습장에서 전주지역 유아와 가족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2026 유아기후 환경행사인 ‘지구지킴이가 될래요’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연생태관 내 유아기후환경교육관에서 추진하는 유아 대상 환경교육 행사로, 유아를 동반한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환경 체험과 공연을 즐기게 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작은이끼순화물 함께 만들기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기 만들기 △지구사랑 LED 랜턴 만들기 등 8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유아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해 미래세대의 환경의식 함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디지털 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14일 서중학교에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 캠페인 ‘주변인! 우리가 만드는 더 나은 디지털 세상’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주변인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마련됐다.

학생들은 ‘힘이 되는 주변인, 나도 할 수 있어!’ 활동에서 피해 촬영물 저장·공유하지 않기, 피해자 비난·소문내지 않기, 지지와 응원의 말 전하기,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 요청하기 등 실천할 행동을 선택해 스티커를 붙였다.

이어 ‘마음을 담아, 지지의 한마디’ 활동에서는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원할



때, 함께 도움을 찾아볼게’ 등 지지 문구를 포스트잇에 따라 쓰며 피해자를 향한 지지와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심기봉 센터장은 “피해 촬영물을 공유하지 않고 피해자를 존중하는 작은 실천이 피해 확산을 막는 힘이 된다”며 “청소년들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변인의 역할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 산림 불법행위 962건 적발

피해액만 128억 원…산지 관리 및 원상복구 실태 점검 필요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 6개월 동안 산림 불법행위가 962건 적발되고 피해액이 15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허가 없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산지전용이 전체 적발 건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피해액도 128억 원을 넘어서면서 산지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산림 불법행위는 모두 96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면적은 230.7ha, 피해액은 152억

792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북에서 연평균 약 175건, 이를 한 번꼴로 산림 불법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훼손면적 230.7ha는 축구장 약 32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이 642건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이어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포함한 기타 불법행위 171건, 무허가벌채 141건, 도벌 8건 순이었다.

특히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128억 7,387만 원으로 전북 전체 피해액의 84.6%에 달했다. 전체 산림 불법행위 10건 가운데 7건가량이 불법산지전용이고, 피해액으로는 10원 중 8원 이상이 이 유형에서 발생한 것이다.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면적도 117.4ha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기타 불법행위는 93.2ha, 무허가벌채는 20.1ha로 조사됐다.

불법산지전용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다. 산림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형과 토양 등 산지의 본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적발 이후 복구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북의 산림 불법행위는 적발 건수뿐 아니라 피해 규모에서도 가법계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불법산지전용을 제외한 피해액은 기타 불법행위 18억 6,563만 원, 무허가벌채 4억 5,711만 원, 도벌 1,1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산림 불법행위 1만 4,221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3,038억 9,3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북의 적발 건수는 약 6.8%, 피해액은 약 5.0%를 차지했다. 전남의 적발 건수는 999건으로 전북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관리다. 산림 불법행위는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까지 이뤄져야 산림자원의 추가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김선교 의원은 “산림 내 불법행위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은 불법행위 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에서도 불법산지전용이 산림 훼손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시·군별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적발된 불법 전용 산지의 복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우정청>

전북우정청, 중소기업 해외 물류비 부담 완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협약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구본준)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물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0월 14일 우체국 물류지원단(이사장 오기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해 전북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다수 발굴해 1,500만원 한도로 업체당 50만원씩 해외 물류비를 지원한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와 관세 증가로 인한 물류비 상승에 따라 전북도 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수

출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지방우정청은 전주시와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예산 소진 시까지 해상·내륙 운송비를 업체당 500만원 지원함은 물론 항공 운송비는 업체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전북지방우정청 구본준 청장은 “지자체는 물론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우편 이용 편의를 높여 도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도시가스㈜>

전북도시가스(주), 대한적십자사 ‘ESG실천’ 동참

지역사회 나눔 실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도시가스(주)가 ESG실천기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시가스(주)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하며 지역 발전의 기틀을 다져온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창립 이래 철저한 안전 관리와 고품질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 실천과 다

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동희 전북도시가스(주) 전무이사는 “지역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살피는 사회적 책임 또한 주요한 임무”라며,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다각적인 나눔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전주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맞손’

채용 특강·재직자 대화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시와 손잡고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채용 정보 제공부터 현지 직원과의 대화, 업무 현장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 구직자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13일 전북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전주 지역 취업 준비 청년 30여 명을 대상으

로 ‘청년잡담(JOB談)’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과 조직문화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와 공동으로 추진됐다.

행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업무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채용 특강, 재직자와의 대화, 사육 탐방 순으로 진행됐다.

채용 특강에서는 공단 내부 전문가가 채용 절차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

량 등을 설명하며 청년들의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도왔다.

이어 진행된 ‘재직자와의 대화’에서는 공단 직원들이 담당 업무와 조직문화, 실제 근무 환경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청년들은 채용 공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직무 특성과 업무 현장의 경험을 직접 들으며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참가자들은 공단 본부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실제 업무 환경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채용 설명회

에서 벗어나 현직자와의 소통과 현장 체험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채용과 연계되는 후속 지원 계획이나 향후 행사 확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황승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는 “청년들이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채용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지역 청년들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축산 냄새 관리 정보, 농가·주민이 알기 쉽게 바꿨다

농진청, 탈취탑 자동운전 기술 연구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가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축산 냄새 저감 기술 원리와 관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시범 사업을 통해 보급한 냄새 측정장치, 탈취탑 설치·운영 농가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술 적용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아 개선했다.

탈취탑이 가동 중인지, 냄새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냄새 저감 장치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냄새 저감 방식을 설명했다.

냄새 알림판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에는 색깔별 의미를 그림과 문구를 달아 설명했다. 냄새 알림판의 초록색은 ‘냄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 노란색은 ‘냄새가 다소 느껴지는 상태’임을 알 수 있게 안내했다.

또한, 날씨나 사람에 따라 냄새를 다르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왜 냄새는 다르

게 느껴질까요?’란 설명 자료를 제공해 이해를 도왔다.

올해 8~9월 농가와 지역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농가의 냄새 관리 노력이 지역 주민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항목의 평균 점수가 개선 전 3.2점(5점 만점)에서 개선 후 4.6점으로 올랐다.

냄새 측정장치와 탈취탑 설치 후 농가와 지역 주민이 느끼는 냄새 강도는 설치 전 4.8점에서 설치 후 3.5점으로 낮아졌다.

이 과제는 현장 중심의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자체적으로 운영

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 우수상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탈취탑 운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2027년부터 연구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스마트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축산농가는 냄새 저감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에게 알릴 책임도 있다”며 “농가와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기술 개발과 이를 알리는 공공 서비스 실현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LX, 노후도시 정비 전자동의 확대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 개선과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복잡한 서면 동의 절차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4일 LX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동의 서비스는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장소에 관계없이 정비사업 관련 동의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주민 동의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특히 동의를 위·변조 의혹과 본인 확인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LX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전자동의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 전자문서의 진본 여부와 동의 참여 시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주민 동의율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 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의를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동의 절차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현장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LX에 따르면 현재까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35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2만5천여 명이 전자결정에 참여했다.

심병성 LX 공간정보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사업의 투명성”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교육청,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390억 확보

전회 대비 252% ↑
자체 예산 등 더해
총 509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2027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390억 원을 확보하며 도내 학교 현장의 노후 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정비에 나선다.



전호성 교육감

전북교육청은 보통교부금 개편 논의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선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확보한 특별교부금 390억 원에 자체 예산 117억 원과 지자체 대응투자금 2억 원을 더해 총 509억 원 규모의 재원을 편성하고, 도내 29개 지역교육 현안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에는 학생 안전 확보와 직결된 시설 개선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소에너지교 기숙사

신축(99억 원) △정일중 체육관 전면 보수(37억 원) △전주술내고 식생활관 이전·개축(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김종현 예산과장은 “확보된 재원이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익산서 전북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열린다

16일 1,000여 명 참여

익산에서 전북 14개 시군 지체장애인 선수들의 도전과 열정의 무대가 펼쳐진다.

익산시는 오는 16일 제42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익산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익산시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도내 지체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전북 14개 시군에서 지체장애인 선수단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이

번 대회는 지체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육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교육청, 10억 이상 주요 정책 ‘유효성 검증’ 첫 시행

3년 경과 사업 실효성
심의해 폐지 여부 결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정책 유효성 검증’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에 따른 조치로, 최초 대상은 조례 시행일인 2024년 1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추진된 사업 중 최종예산액 기준 10억 원 이상 투입된 주요 정책 사업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달 중 ‘정책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1~12월 10대 핵심과제와 공약사업, 주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적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도를 종합 검토해 검증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시행 후 3년 이내 성과와 실적을 누리집에 공개하며, 3년 경과 후 ‘정책사업 정비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를 거쳐 부적합 의견이 나오면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검증위가 목적 달성 여부와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살펴 폐지 의견을 내면 부서 검토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교육정책사업 정

비’ 결과와 ‘정책만족도 조사’를 검증 과정에 연계해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태식 정책기획과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은 사업 성과와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로 “기존 제도와 긴밀히 연계해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가 이뤄지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롤리, 국가대표 8명 배출

전북특별자치도 롤리스포츠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수 7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8명의 태극마크를 배출했다.

이번에 선발된 전북 소속 선수는 시니어 3명, 주니어 1명, 유소년 3명이다. 시니어 부문에서는 전북체육회 연제중(단거리)이 주종목인 500m+D에서 안정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생애 첫 국가대표로 선발됐으며, 전북원스포츠탈단 주장 김선엽(장거리)은 노련한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전북 이적 후 두 번째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올해 성인 무대에 데뷔한 이다연(단거리, 도롤리스포츠연맹) 역시 500m+D에서 경쟁력을 입증하며 성인 무대 진입과 동시에 국가대표로 직행했다.

주니어 부문에서는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1,000m 금메달리스트인 정영운(전주생명과학고 2학년, 단거리)이 선

발했다.

유소년 부문에는 올해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관왕(500m+D, 3,000m 계주)을 차지한 김하연(전주중 3학년, 단거리)을 비롯해 전북스포츠클럽 소속 이철우(6학년, 장거리)와 박준범(4학년, 단거리) 등 유망주 3명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지도자 부문에서는 전북원스포츠탈단을 이끄는 손근성 감독이 취임 1년 차에 국가대표 지도자로 발탁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전북롤리스포츠연맹 관계자는 “클럽스포츠 유망주들이 실업팀 정상급 선수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며 “선수들이 국내의 무대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훈련과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정읍기적의도서관, 11월 7일 가족 독서행사

정읍기적의도서관이 영유아와 가족이 책으로 소통하고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북스타트 가족의 날’을 연다.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사는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과 친숙해지고, 가정에서도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 영유아기의 독서가 언어·인지·사회성 발달을 돕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그림책 읽기를 비롯해 음악 놀

이와 풍선 체험 등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진행된다. 책 읽기와 다양한 놀이를 함께 구성해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정읍시립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 읽는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연 기자

전북대·충동창회, ‘서울대 10개’ 추가 선정 협력 촉구

정치권 결집 및 교육부
1차 평가 결과 공개 요구

전북대학교와 전북대 총동창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전북대 추가 선정을 위한 정치권의 예산 확보와 공동 대응 제안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북대와 총동창회에 따르면 조

국혁신당 전북도당과 강경숙 국회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전북대 추가 선정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나서겠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당을 넘어선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앞서 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점국립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최고진 교육부장관 역시 2개 이상 추가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전북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

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미션정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개발과 농생명·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을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결해 지역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이 반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션정 대학이 보안 과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1차 선정의 평가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대 총동창회 역시 별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약속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힘을 보탤다. 총동창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현장에서 약속한 조기 후속 선정 지원을 상기시키며, 여야 정치권과 지자체, 25만 동문 네트워크가 협력해 전북대의 도약과 지역 미래산업 거점 조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체육회, 제6회 체육영재선발대회 시상식

36명 입상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운동에 재능이 있는 체육 꿈나무를 발굴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6회 전북체육영재선발대회’의 상위 입상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1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년별 6명씩 선발된 상위 입상자 총 36명에게 교육감 상장과 체육회장 상패를 수여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사흘간 장수종합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일반 학생 1,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참가 학생들은 근력과 근지구력, 유

연성, 심폐지구력 등 필수 건강체력과 민첩성, 신경반응 등 운동체력을 두루 측정받았으며, 도 체육회는 종목별 체험 프로그램과 스포츠클럽 연계 부스를 함께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운동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북체육회는 입상자를 비롯해 이번 대회 참가 학생이 전문체육 선수로 등

록할 경우 다양한 혜택과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육성에 나갈 계획이다.

정강선 체육회장은 “전북 체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이 조기에 발굴되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1. 라디오 볼륨 줄이기!

고령운전자의 경우, 청력 반응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외부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라디오나 차량 내 소음을 조절해 주세요.



2. 장거리 및 야간운전 피하기!

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나쁘다면 야간 및 장거리 운전 피해야 합니다. 자주 휴식을 취해 눈의 피로도를 최대한 풀어주세요.



3. 운전 경로 미리 파악하기!

미리 운전 경로를 점검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주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좌석 높여 시야 확보하기!

저하된 시력이나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석의 좌석을 조금 높여 시야를 넓게 확보하여야 합니다.



정읍 정신건강복지센터 2년 연속 장관상 수상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용)가 정신건강증진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 자살예방 사업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시상은 지난 8일 서울 피스앤펍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발전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이다.

그동안 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과 사례관리, 정신건강증진 활동 등을 운영해 왔다. 정신건강 관련 응급 상황에도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위기 대응과 응급 개입에 나선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며 지역 내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민·관·산·학 함께 만드는 ‘화학사고 없는 안전도시 군산’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화학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화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제4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로 커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대응체계와 관계기관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화학물질 사용과 취급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과 기업, 관계기관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행사로는 29일 오후 2시 군산회관 너른홀에서 '제4회 군산시 화학안전주간 기념식 및 화학안전문화 정착 선포식'이 열린다. 기념식에는 시와 기업체,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화학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협력 의지를 다지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김현숙 군산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시의 화학안전 정책과 관계기관·기업체의 사고 예방 및 대응 노력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소방서, 긴급구조 종합 훈련… 실전 대응 역량 강화

익산소방서는 오는 21일 수요일 오후 2시 익산시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유관기관 간 통합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2026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익산소방서가 주관하며 익산시청, 제9885부대, 익산경찰서, 익산시보건소,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병원, 한국전력공사 등 지역 내 15개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다. 훈련은 각 기관의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재난 현장에서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의 격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무대본·무아나운서 방식으로 3방면 이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실전형 훈련 방식을 도입해 실제 상황 대응력을 극대화한다. 소철환 익산소방서장은 “이번 실전형 종합훈련을 통해 지휘·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어떠한 재난 환경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국비 추가 확보 ‘총력’

김재준 시장 기획처예산처 방문해 정부 공감대 형성

군산시(시장 김재준)가 2027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핵심사업 증액을 위해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설득 활동을 펼쳤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14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최근 임명된 김명중 예산실장을 만나 군산시 주요 사업 필요성과 국회 단계 증액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번 면담은 11월부터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 단계 증액에 필요한 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신입 예산실장에게 군산의 주요 현안과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산시의 2027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반영액은 1조 3,010억 원이다. 시는 정부

안에 반영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한편, 미래산업과 주요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7개 핵심사업의 국비 660억 원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김명중 예산실장에게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가 협력기업 입주와 기술개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산업용지와 기업지원 기반이 적기에 구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주도 성장의 취지를 살려, 기업의 지방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 70억원, 로봇부품 클러스터 상생형 임대공장 건설 5억원 등 현대차 투자 연계사업의 국비 추가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에게 군산시 국가예산 사업 전반과 국회 심사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K-로봇 피지컬 AI 실증공유센터와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핵심사업의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방향과 연계해 새만금 산업단지과 군산의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AI·로봇 분야 사업의 준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9월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를 잇달아 찾아 예결위원장과 국회 상임위원회 주요 인사,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이어왔다.

김재준 시장은 “정부안에 반영된 1조 3,010억 원의 성과를 국회 단계의 추가 증액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현대차 투자를 비롯해 군산에 찾아온 성장의 기회가 산업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주요 사업장 현장행보 계속

추진상황과 후속과제 점검 운영 이후까지 대비

정읍시가 주요 사업의 마무리 공정과 시설 운영 여건을 직접 살피며 이용객 편의와 현장 근로자 안전을 챙기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3일 △내장산 자연휴양림 자동차 야영장(오코캠핑장)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신축 현장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운영 여건 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사업별 마무리 공정과 기반시설 지원사항을 살피고, 준공이나 시설개선 이후 이용·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내장산 자연휴양림에서는 자동차 야영장의 마무리 공사와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 2단계 조성사업으로, 기존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인근에 약 44억원을 들여 자동차 야영장 11면과 카라반 5대, 숲속의 집 2동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

현재 진입로 포장과 울타리 설치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개장 이후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진입 경로와 편의·안전시설을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인재개발원 신축 현장에서는 정읍시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업과 출입구 주변 교통여건 등 개원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현재 내년 개원을 목표로 관련 절차와 공사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연수원 부지 정비와 상수

도 급수관 설치, 차량이 마주 지나갈 수 있는 교량 설치 등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이용객 편의시설 등 필요한 지원사항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시설개선 이후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여건을 확인했다.

시는 약 10억원을 투입해 사전 선별 공간과 재활용품 집합공간을 확충했다. 재활용품 처리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학수 시장은 “각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이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안전 최우선’

인파 관리·교통 통제 식품위생 등 점검

익산시가 오는 23일 개막하는 '제23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앞두고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시는 14일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분야별 안전대책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최정호 익산시장을 비롯해 익산경찰서와 익산소방서 등 관계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축제 기간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파 밀집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행사장 내 관람객 동선과 안전 인력 배치 △교통 통제 및 주차 공간 확보 △비상 대응 체계와 긴급 출동 차량 통행로 확보 △가설건축물 설치 안전 △식품위생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축제 개막 전날인 22일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행사장 시설과 관람객 동선 등 주요 위험 요소를 최종 확인하고, 발견된 문제는 개막 전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최정호 시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축제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축제 준비부터 운영까지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노후 분리수거시설 개선

분리배출 더 편하게, 아파트 더 쾌적하게

정읍시가 오래된 공동주택의 분리수거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후 분리수거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낡은 시설을 개선해 생활폐기물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리수거시설 개선은 주민들의 분리배출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빗물 유

입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시설로 인한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도 함께 해소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입주민이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시 보조금은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최소 1050만원에서 최대 63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지방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북면성원1차아파트 △신흥장미2차아파트 △삼화타운아파트 등 3개 단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중연 익산시의원 ‘아이돌봄 택시’ 의견 청취

학부모·돌봄 현장 한자리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중연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의회회의실에서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택시’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의원이 지난 9월 제280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익산아이 다ي옴 플랫폼’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실수와 실행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이 의원은 ‘이동까지 돌봄’의 이동수단 부재가 공공 돌봄서비스 이용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이동의 기회가 산업생태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해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중연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추진에 앞서 학부모의 현실적인 우려와 행정 현장의 여건을 가감 없이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기사 신원 검증과 대면 인계 등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집행부와 긴밀히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보완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중연 시의원

현장에서는 서비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집중

거론됐다.

학부모들은 “단순한 승차차 알림만으로는 아이 혼자 택시를 태우기 불안하다”며 “전담 기사 지정, 대면 인계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먼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 관계부서 역시 기사 자격 검증과 현장 인계 체계 등 안전 인프라 구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중연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추진에 앞서 학부모의 현실적인 우려와 행정 현장의 여건을 가감 없이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기사 신원 검증과 대면 인계 등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집행부와 긴밀히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보완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참여형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홍보주간 맞아

군산시보건소는 2026년 정신건강 홍보주간(10월 10일~24일)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군산회관(GCC) 관 및 로비에서 시민 참여형 마음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보건소가 주최하고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6일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뇌파검사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살펴보는 ‘마음채방’ △어두운 공간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마음의 휴식을 경험하는 ‘고요의 방’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편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시민들이 부담 없이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다해 군산시보건소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위로와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서,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경찰 합동순찰

범죄 피해 예방 홍보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지난 13일 시민경찰연합회, 8기 교육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수성동 일대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순찰은 강경남 경찰서장의 현장 지도로 범죄 취약지에 설치된 비상벨에 대한 설명과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직접 작동시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연결되는 과정을 체험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을 경험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전단지 배부하고 날로 다양해지는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강경남 정읍서장은 “앞으로도 시민경찰과 함께 지역사회 치안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과 함께 공동체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드는 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익산형 일자리, 기업 판로 넓히고 고용 늘렸다

익산시는 올해 ‘전북 익산형 일자리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13개 협력기업이 총 5억 원의 주문실적을 기록하고 43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마케팅은 지역 식품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익산형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NS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판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력기업은 △그린로트 △다해식품 △담팜 △라라스팜 △모닝팝 △미담 △에스시디 등 13개사다.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업에는 고객 대상 홍보 문자와 앱 알림, 익산형 일자리 전용판 운영, 모바일 앱 메인 화면 노출 등 기업당 750만 원 상당의 마케팅 혜택이 제공됐다.

참여기업들은 총 4차례의 공동마케팅에서 닭가공품, 두부, 김, 팔양갱, 서리태가루 등을 선보이며 5억 원의 주문 실적을 달성했다. 신규 고용도 당초 계획을 웃돌았다. 13개 협력기업은 사업 신청 당시 총 3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43명을 채용해 계획보다 4명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시는 이번 공동마케팅으로 단기적인 매출 확대는 물론 전국 시장에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해,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산단 공동주택 2884세대 공급 ‘속도’

테크노2산단 미니복합타운 건립 1블록 777세대 내년 1월 첫 분양 2·4블록 주택사업계획 승인 앞둔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안에 1블록부터 4블록까지 총 2,88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1블록은 총 777세대 규모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12월 첫 삽

을 떠 오는 2027년 1월 분양에 나선다. 이어 2·3·4블록은 총 2,107세대 규모로, 지난 8월 건축·교통 통합심사에서 조건부 가결된 데 이어 이달 셋째 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각 블록의 공동주택 건립이 차례로 이어지면서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인근 산단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를 달고, 일터와 살터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주거 환경을 다지는 데 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단지 인근에 공동주택 공급

이 확대되면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미니복합타운 내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조기에 정주 여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 기반시설을 확충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보험 단체가입 추진

대설·강풍 등 자연재난 주택 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예방대책 병행

남원시는 겨울철 대설·강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피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가입은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의 일환으로, 갑작스러운 폭설과 강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피해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설과 강풍을 비롯해 태풍, 호우, 홍수,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총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며, 재난 발생 이후 피해 복구와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실질적인 안전

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보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 대상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과 제설대책 정비, 한과 취약계층 보호 등 분야별 예방대책을 병행해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인계면 문화복지 거점 ‘행복이음노리터’ 준공

군, 40억 투입 기초생활거점 조성 배후마을까지 생활서비스 제공

순창군 인계면에 주민들의 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새로운 생활거점 공간이 마련됐다.

순창군은 지난 13일 인계면 행복이음노리터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오수환 순창군의회 의장,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면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군은 지난 2021년 협약 체결 이후 올해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해 거점 시설인 ‘행복이음노리터’와 야외 활동 공간인 ‘건강장수문화정류장’을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에 준공된 행복이음노리터는 그



<사진=순창군>

동안 지역 내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겪어온 활동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강당을 마련했으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민카페도 갖춰 일상 속 소통과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러한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주민들이 직접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는 데도 힘썼다.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통해 면 소재지뿐 아니라 배후마을 주민들

에게도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건강장수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실버케어 전문가 등 29명의 지역 활동가를 양성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이들이 앞으로 지역사회 돌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전주·전북도 상생협력 ‘물고기철길’ 개방

옛 만경강철교 생태관광지 ‘변신’ 비비정·예술촌과 관광 동선 연결

완주군이 과거와 현재, 생태와 예술을 잇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인 ‘만경강 물고기철길’의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14일 완주군은, 삼례읍 (구)만경강철교 일원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도·시·군 관계자,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경강 물고기철길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만경강 물고기철길’은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손을 잡고 추진해 온 대표적인 지자체 간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 2023년 완주군이 전주시에 사업을 제안하며 첫발을 땀 이후, 행정 경계를 허문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옛 만경강철교 상부에 새롭게 구축된 405m 길이의 보행로와 내부 스카이워크, 탁 트인 전망덱터가 공식 개방됐다.



<사진=완주군>

특히 이번 물고기철길은 보행자 위주의 인프라를 넘어 만경강변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했다. 진출입부 연결지점에 자전거 슬로프를 조성해 라이딩 중인 방문객들도 불편함 없이 자전거를 끌고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라이더와 관광객이 철길 위에서 시원한 강변 풍경을 조망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됨에 따라, 만경강 일대가 친환경 생태 레저 관광의 대표 거점으로 도

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완주 9경 중 하나인 비비정과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역사·문화 자원부 연결지점에 자전거 슬로프를 조성해 라이딩 중인 방문객들도 불편함 없이 자전거를 끌고 진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념사에서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던 만경강 철교가 생태와 예술이 숨 쉬는 명품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 행감위원장에 임귀현 의원 선임

완주군의회(의장 성종기)는 14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임귀현 의원을, 부위원장에 소병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정례회 기간 중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주요 정책과 사업의 추진 과정,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행정의 책임성 등을 종합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완주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균형 주요 현안과 사업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고 정책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미



임귀현 위원장 소병호 부위원장

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한 지적을 넘어 균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감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임귀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완주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그 의미와 책임이 더욱 크다”며 “군민의 기대와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동료 의원들과 충분한 자료 검토와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이색 디저트 ‘고추장 카라멜’ 개발

전문가 컨설팅 거쳐 상품화 광주 팝업서 소비자에 첫선

순창군 강전산에 위치한 카페 ‘산술’이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고추장을 활용한 이색 디저트 ‘고추장 카라멜’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제품은 담양군문화재단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전통장 디저트 개발사업 ‘스윗담순(SWEET 담순)’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산술은 공모 선정 이후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며 자체 개발한 레시피로 고추장 카라멜을 완성했다.

제품 개발에 참여한 카페 산술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쌀 베이커리를 비롯해 순창공이빵, 흑쌀약빵 등 순창

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여 온 업체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상품 개발 경험에 재단의 전문가 컨설팅과 상품화 지원이 더해지면서 순창 고추장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디저트를 완성했다.

이렇게 탄생한 고추장 카라멜은 지난 9월 광주에서 열린 첫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됐다.

제품 홍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순창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에서도 팝업스토어가 운영될 예정으로,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순창 고추장을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를 선보일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소방공무원 심신 힐링프로그램 운영

전북 소방공무원 대상 3회 진행 스트레스 축적·자연 체험 마련

남원시는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근무하며 높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소방공무원 심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속해온 사업으로 올해는 총 3회에 걸쳐 전북 소방공무원 9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반복되는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긴장과 피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지수 측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남원의 자연

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피로 리움 미디어아트 체험, 광한루원 야경 관람, 백두대간 숲 체험, 난타 체험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남원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소방 분야와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심신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남원시 정책개발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장감 높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은 꼭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남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속에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삼봉파출소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독립 서부재로 골든타임 우려 재원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완주군의회(의장 성종기)는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봉신도시 파출소 신설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와 인구 유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삼봉신도시에 독립된 치안 관서가 없어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파출소 신설과 관련 예산의 조속한 확보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여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삼봉신도시는 기존 삼례파출소

의 원거리 출동에 의존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치안의 골든타임 확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완주군이 방범용 CCTV 확대와 자율방범대 운영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가 경찰의 빈자리를 온전히 대신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출소 신설의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삼봉파출소’ 설치 조속 승인 파출소 신축 예산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반영 및 재원 배정 △국회의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전북대병원지부 노조 도농 교류로 지역 상권 활성화

순창군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가 추진한 ‘농촌사랑 동행순창’ 업무협약이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며 도농 교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8월 ‘농촌사랑 동행순창’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전북대병원지부 조합원 700여 명이 총 11일에 걸쳐 순창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 일정은 사전접사를 시작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추가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교육과 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사 장소 대관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1층 연회장에서 노동조합 관련 교육을 받는 한편, 순창의 주요 정책과 지역 행사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고 있다.

교육 외에도 지역의 특색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조합원들은 순창 고추장민속마을을 방문해 고추장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고, 관내 음식점과 주요 관광지를 이용하며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살이 청년 모집 2대1 경쟁률 3명 중 2명 ‘지역 정착 관심’

남원시는 2026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남원살이 남원누비(Namwon NUBI)’ 참가자 모집을 지난 11일 마감한 결과, 20명 모집에 41명이 신청해 약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 ‘2026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된다. 전북의 지역에 사는 만 19~45세 청년이 오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남원에 머물며 지역의 풍류와 문화, 자연을 경험한다. 숙박비와 식비, 체험비, 여행자보험, 프로그램 이동 차량이 모두 무료로 지원된다.

채류 유형별로는 21박 22일 전 일정을 머무는 ‘3주살기’ 신청자가 26명(63.4%)으로 가장 많았다. 덕파면 2주(14박 15일)는 8명, 지리산 1주(7박 8일)는 7명이 신청했다. 3주살기 신청자만으로 모집 정원을 넘어선 셈이며, 신청자의 85.4%(35명)는 선발 결과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도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신청자는 경기 16명, 서울 15명 등 수도권이 33명(80.5%)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경남 각 2명, 광주·전남·대전·대구에서도 신청이 이어졌다. 성별로는 여성 24명, 남성 17명이었고 연령대는 20~40대가 고르게 참여했다. 현재 신분은 아직 준비 중(14명)과 프리랜서(11명)가 많아, 일과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에 남원에 정주를 희망하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착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귀농·귀촌이나 지역 취창업 관심도는 5점 척도 결과 4점 이상이 27명(65.9%)이었다.

시는 서류심사와 필요시 비대면 면접을 거쳐 14일 최종 참가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전북도청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

완주군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늘리고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북돋우기차 전북특별자치도청을 찾아 현장 홍보를 펼쳤다.

14일 완주군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청 1층 로비 고향사랑기부 담래품 홍보관 앞에서 도청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홍보물을 활용해 제도의 뜻을 알리고, ‘완주사랑군민제’와 ‘완주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시 10% 환급(캐시백) 등 완주군만의 차별화된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려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현장 기부 참여자를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군의 우수한 대표 담래품 전시와 맛보기(시식) 부스를 함께 운영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고성민 청소년 전북·경기 교류서 지도자 역량 발휘

완주군청소년수련관에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금장 단계에 도전하는 고성민(군산대학교 2학년) 청소년이 '2026년 전북·경기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에 지도자로 참여해 4박 5일 간의 합숙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 등에 참여하며 잠재력과 역량을 길러가는 국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금장 단계는 동장·은장과 달리 '합숙 활동'을 필수로 거친다.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사람들과 한데 모여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는 과정으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남과 손을 맞잡으며 책임감과 자립심, 공동체 역량을 다지는 데 뜻을 둔다.

고성민 청소년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이번 교류 행사에서 지도자로 나서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을 돕고 생활을 함께하며 금장 합숙 활동을 알차게 수행했다. 다른 지역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배려와 소통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과 통솔력을 길렀다.

/원주=김명곤 기자



김제시 사회적기업 5개소, 가족돌봄아동 위한 성금 기탁

김제시 사회적기업들의 따뜻한 나눔이 가족돌봄아동을 위한 돌봄과 지원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시는 14일 김제시 사회적기업 5개소가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인 '함께돌봄'에 사용해 달라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유한회사 상우산업개발(대표 송수웅), 유한회사 삼보정보통신(대표 오진균), 농업회사법인 베리라이스(대표 배운섭),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새만금유기농꾸지봉(이사 안정근), 아름드리영농조합법인(실장 마효정)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번 나눔은 사회적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 돌봄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제=윤봉기 기자

(주)휴엔라이트, 고창군에 총 1500만원 기탁

지역에 받은 관심·성원 보답

고창군과 인연을 맺은 (주)휴엔라이트가 지난 13일 고창군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천만원과 인재육성 장학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충남 태안군에 소재한 (주)휴엔라이트는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공'을 맡으면서 고창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에 받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인재기

우기의 취지에 공감해 이번 기부

에 참여했다. 기탁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 인재육성 장학기부금으로 조성돼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주)휴엔라이트 강보경 대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창군과의 인연이 더욱 오래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창의 발전과 지역 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손명엽 군산시해병대전우회장 '애향장' 수상

장수군민의날 기념식서 영예

손명엽 군산시해병대전우회장이 지난 13일에 열린 제59회 장수군민의날 기념식에서 애향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손 회장이 군산시해병대전우회장과 전북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해병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보여준 책임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손 회장은 군산시해병대전우회를 이끌며 해병대 전우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단체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힘써 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해병부회장으로서는 지역 안보단체 간 협력과 전우애 증진에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손명엽 회장은 장수 출신의 군산 기업인으로 금번 수상의 기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고, 해병대의 자긍심과 전우애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공동체 화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가족 골목투어 추진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학동예술마을 일원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 96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골목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서학동예술마을 내 거점 인프라를 활용해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가족관계 증진,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전문 공방과 연계한 수제 도장 만들기과 도자기 점토 만들기 등 참여형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가족간의 소통과 교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구별 맞춤형 간식도 제공된다.

시는 창작 활동 중심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성취감을 높이고, 가족간 친밀한 정서적 교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한국농어촌공 남원지사, 고향사랑기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14일 남원의 발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500만 원을 기부하며 누적 기부액은 1,370만 원을 기록했다.

안재호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는 "남원의 발전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종모 남원시장은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 영등1동 지사협 홀몸 어르신에 가을 추억 선물

익산시 영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권영택·황규범)는 14일 지역 내 저소득 홀몸 고령자 19명과 함께 전남 여수시 일원에서 '이야기가 있는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야기가 있는 나들이'는 외부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홀몸 고령자에게 문화·여가활동과 정서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영등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복지 특화사업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순신광장을 찾아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하고,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여수의 해안 풍경을 둘러본 뒤 돌산공원을 산책하며 이웃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동행해 참가자들의 이동을 돕고 말벗이 되며 안전한 여행을 지원했다.

황규범 민간위원장은 "이번 나들이가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 추억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옹동면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정읍시 옹동면이 지난 13일 어르신 20여명의 모습을 장수사진에 담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모습을 기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읍시자원봉사센터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전문 사진작가와 화장 전문가 등 봉사자들이 옹동면을 찾아 사진 촬영과 화장을 지원하며 정성을 보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다. 자연스럽고 밝은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어르신들에게 오래 간직할 추억을 남겼다.

촬영한 사진은 액자로 제작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읍=김정진 기자

일상에서 실천하는 건강관리법 쉽고 효과적인 습관 만들기



물 자주
마시기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관리



금연
하기



금연
하기

절주
하기



제53회 고창모양성제 ‘전통 위에 새로운 즐거움 더한다’

전북 고창군에서 15일부터 5일간 ‘제53회 고창모양성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올해는 고창읍성, 꽃정원, 전통예술체험마을 일원에서 ‘전통 위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다’를 테마로 고창의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모양성의 정취에 자연스레 물드는 감성형 참여축제로 꾸며진다.

‘모양성’이라고도 불리는 고창읍성(사적 145호)은 서해안을 통해 공격해 올 왜구들을 대비해 조선 단종 원년인 1453년에 당시 호남지역과 제주도까지 19개 고을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 쌓았다. 아직도 1684m 성곽길 주변에는 구간별 책임고을을 새긴 표지석이 남아 있기도 하다. 고창군은 매년 음력 9월9일(중양절) 추수가 마무리되면 읍성 광장에 모두함께 모여서 한해의 고생을 격려하고,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역사문화예술 축제인 모양성제를 열고 있다. <편집자 주>

600년 읍성에서 물드는 닷새간의 축제 한마당

■ 매일 색다르게 즐긴다... 고창읍성 대표 전통 ‘담성놀이’의 변신

올해 축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창읍성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담성놀이의 확대다. 축제 기간인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고창읍성 성곽 둘레길에서는 매일 참여 대상과 방식이 달라지는 ‘이색(色) 담성놀이’가 진행된다.

15일 학생 4명이 한 팀이 되어 참여하는 ‘꿈나무 담성원정대’를 시작으로, 16일에는 3대가 함께 성곽을 걷는 ‘3대-1심’, 17일에는 연인이 손을 잡고 성곽을 완주하는 LOVE 담성놀이, 18일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첫 담성, 같이 가(家!)’,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같은 성씨의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걷는 ‘담성놀이 GOGO씨’가 이어진다.

주말에는 담성놀이의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17일 오전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하는 주간 담성놀이가 열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한 지들을 들고 성곽을 걷는 야간 담성놀이가 진행된다. 야간 담성놀이는 단순히 성곽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래시몹과 미니 이벤트, 강강술래 ‘달 BAM댄스’ 등이 어우러져 밤의 고창읍성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꾸민다. 상시 담성놀이의 담성놀이 홍보관도 함께 운영해 축제장을 찾은 누구나 고창읍성의 전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홉 절경 따라 모양성 한 바퀴”... 고창읍성 전체가 거대한 놀이터

올해 고창읍성의 핵심 테마는 ‘모양성 유람록-아홉 절경을 따라 걷는 특별한 유람’이다. 관광객이 유람객이 되어 성 안에서 이동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미션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한 ‘모양별시’에서는 문과·무과·잡과 시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축제 기간 매일 오후 2시에 열리며 평일 30명, 주말 50명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놀이로 풀어낸 ‘모양 탐구 생활’도 흥미를 더한다. 매품팔이 체험을 비롯해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게임으로 표현한 ‘뚝뚝뚝 대장간’, 조선시대 화장품 판매상인 매분구를 소재로 한 ‘연지곤지 포스트잇 떼기’, 조선판 부동산 중개업자 사패와 함께하는 땅따먹기, 전기수와 책을 활용해 거꾸는 세책점 등 역사적 소재를 현대적인 놀이로 재해석했다. 고창읍성을 축소한 미로에서 8개 미션을 완수하는 ‘모양성 유람단’도 운영돼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여기에 보물지도와 암호카드를 들고 읍성 곳곳을 누비며 보물을 찾아가는 역사 추리 프로그램 ‘모양성제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매일 다른 배지를 얻을 수 있는 ‘모양성 유람록 배지 대방출’, 고즈넉한 작정에서 즐기는 ‘모양 다실’, 900인의 얼굴로 완성하는 ‘모양성 축성인 방명록’ 등 읍성 곳곳에서 체험 콘텐츠가 이어진다.

■ 밤하늘에는 1,000대 드론, 하늘에는 블랙이글스

대규모 불거리도 한층 풍성해진다. 16일 오후 7시30분에는 고창읍성 일원 밤하늘을 무대로 1,000여 대 규모의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고창과 모양성제를 주제로 수많은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대표 야간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17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특설무대 일원에서는 대한민국 공공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진다. 고난도 곡예비행과 화려한 공중 퍼포먼스로 주말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강렬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축제 첫날인 15일에는 약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군민 화합 읍면 거리퍼레이드가 축제의 문을 연다. 컬러풀 고창을 주제로 14개 읍면이 저마다의 색과 개성을 살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올해는 터미널 출발로 구간을 변경하고 군청로터



인터뷰

심덕섭 고창군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진수 보여드릴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브랜드로 관광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심덕섭 고창군수. 심 군수는 “세계유산도시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살려 지방인구 소멸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의 변화와 발전의 터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창군은 국내유일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개 주요프로그램(세계유산 고인돌, 세계자연유산 갯벌, 인류무형문화유산 판

소리·농악, 전북서해안권세계지질공원, 기록유산 무장포고문 등) 모두 보유하고 있다.

심 군수는 “조선시대 3대 읍성(고창, 해미, 낙안)의 가치와 자긍심을 지켜온 고창군이 전통과 현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진수를 보여드리겠다”며 “고창을 찾는 모든 분들이 전통위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하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리에서 1차 심사를 진행한 뒤, 14개 읍면이 특설무대에 한데 모여 화합의 퍼포먼스를 펼친다. 모양성제 로고송에 맞춘 플래시몹도 진행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친환경·ESG 실천형 축제

‘무사고·무바가지·무일회용품’ 3無 실천을 목표로, 축제장 내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읍내 상가와 연계한 동리단길 테마거리와 야시장도 운영되어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먹거리부스, 직거래 장터, 한우 팍파티 등 로컬푸드 중심의 상생형 장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축제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이자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형 축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의의회

2026년도 부안군의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군민 의견을 받습니다

접수기간 2026. 10. 16. ~ 10. 30.

의견내용 부안 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접수방법 부안군의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참고(<https://council.buan.go.kr>)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문의 부안군의의회 의회사무과 정책지원팀(063-580-4080)

